

역대급 째통더위 '백운산 4대 계곡'에서 날려요

아름다운 풍광, 청량한 바람... 동곡·성불·어치·금천 등 4대 계곡에서 재충전

광양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무더위를 식힐 최적의 장소로 '백운산 4대 계곡'을 추천했다.

백운산(1,222m)이 네 개의 손가락을 펼친 듯 뻗어 내린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맑은 물과 수려한 풍광이 으뜸이다.

이들 계곡은 기록적인 폭염과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웰니스 생태 휴양지이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 풍경소리 그윽한 '성불계곡'

백운산의 도솔봉과 형제봉 사이에서 발원한 성불계곡은 깊고 맑은 물, 수려한 삼림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며 지친 여행자를 풀어 안는다.

탁 트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머리에 인 백운산을 마주하며 들어가는 성불계곡은 바위틈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와 짙은 녹음으로 싱그럽고, 얼음장처럼 시린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지그시 눈을 감으면 새소리, 바람 소리, 찰랑이는 잎새 소리가 청

아하다.

□ 역사와 함께 10km를 장사처럼 굽이치는 '동곡계곡'

백운산 정상과 파리봉 사이, 한재에서 발원해 동천을 거쳐 10km를 구불양장으로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동곡계곡은 4대 계곡 중 가장 길다.

이곳은 용소, 장수바위, 선유대, 병암폭포 등 풍부한 수량과 장엄한 풍광이 자아내는 절경을 품고 있으며 진흙, 논실 등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주 등산로들이 있다.

아울러 백운산 삼정 중 하나인 봉황의 정기를 받은 최산두가 10년간 학문에 매진했던 학사대와, 조선국사가 주석했던 옥룡사 동백나무숲 등도 계곡을 따라 자리하며 유서 깊은 역사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다.

□ 전설의 구시폭포를 찾아 '어치계곡' 전산면 어치계곡은 여름 한낮에도 이슬이 맺힐 정도로 시원한 오로대와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구시폭포로 유명하다.

내회교(橋)부터 구시폭포까지 계곡의 수변을 따라 연결한 어치 생태탐방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로다.

사색에 빠져 108계단, 묵고, 쉽터가 설치된 탐방로의 자연생태를 즐기다 보면 장엄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구시폭포가 여행자를 반기고, 임도를 따라 조금 더 오르면 오로대(午露臺)라는 글씨가 새겨진 넓은 바위가 펼쳐진다. 한여름 대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청량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짜는 '금천계곡' 다압면 금천계곡은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짜는 옥녀봉에서 발원해 점동, 절골, 중간담, 새담, 건너담 등을 굽이굽이 흘러내린다. 때 묻지 않은 천연림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과 어우러져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낌의 미학을 선물한다.

금천계곡 끝자락에 등지를 튼 금천계곡 야영장은 시원한 계곡을 끼고 맑은 섬진



강과 숲에 둘러싸인 환상적인 캠핑환경으로 캠핑족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오토캠핑장 24면, 카라반 3면 규모로 관리등을 비롯해 샤워실, 공용취사장, 화장실,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갖췄으며 '캠핑'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군, '생명사랑 실천기관'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생명존중 문화 확산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해 자살예방 체계 구축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과 '동네의원 마음이음', '생명사랑 약국', '생명사랑 실천가게' 지정 확대 운영하며 지역사회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생명사랑 실천기관'은 의원 13곳, 약국 6곳, 번개탄 판매소 11곳, 숙박업소 1곳, 올해 농약 판매업소 강진남부농협 등 4곳을 신규 지정해 총 3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살 수단 차단 및 조기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자살수단 차단사업'은 실천기관의 핵심 활동 중 하나로, 번개탄·농약·숙박업소 등 자살 시도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명사랑 실천기관'은 번개탄, 농

약, 숙박시설 등 자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구매자의 사용 목적 확인, 주의 문구 부착 및 안내활동 실시, 자살 고위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계, 생명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비치 및 간단한 상담 제공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의원, 약국, 가게, 숙박업소의 협조는 자살 예방의 핵심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생명 존중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 외에도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 추진

침수·파손 재산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등 피해 회복 뒷받침

또한, 취득세 등 신고세목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부과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지 및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채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채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

으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군민은 담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재난 피해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폭우로 군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완도군은 지난 22일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민관 합동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방제 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적조 발생 시 어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어장 정화선과 자율 방제단

완도군, 적조 방제 민관 합동 모의 훈련 진행

어선 등이 동원됐으며, 먼저 어장 단계에서는 적조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점검했다.

이후 머드 스톤과 황토를 살포하고 자

율 방제단 어선들의 수류 방제로 적조 확산을 억제하는 방제 작업 등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적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방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황토 23,704톤, 분말 황토 150톤, 머드 스톤 40톤, 황토 살포기 1대, 어장 정화선 1척, 철부선 2척, 읍면 자율방제 선단 구성 등 적조 발생에 대비해 방제 장비와 동원 인력을 확보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진도군, '벼 병해충 종합방제 기간' 운영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병해충 확산 차단에 총력

진도군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벼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벼 병해충 종합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멸구류, 나방류, 먹노린재,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등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수 전후에 등록 약제를 활용해 사전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종합방제는 인접 논에서 동시 방제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지정해 추진되며,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벼대 아래에 주로 발생하는 벼멸구,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병해충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약제가 벼대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살포해야 하며, 드론보다는 광역방제기나 무인헬기 등을 활용하면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벼 병해충 방제비로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해 벼 재배 면적 대비 전라남도내에서 최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적기 방제를 위해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와 지속적인 어찰 활동을 강화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나주소방서,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행정지도

나주소방서(서장 신항식)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 관내 주요 휴양시설(중흥골프드림&리조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와 함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실내 휴양 및 숙박시설이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하여 전기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주/이명열 기자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